



혜경스님의

### 경전읽기

법화경 ㉓ 안락행품 제14

#### 친근처(親近處)

지난 호에서는 '신인락행'에서의 행처(行處) 즉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친근처(親近處)이다. 친근처의 원어는 고차라(gacari)로, 행위의 대상 또는 행동 범위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이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것과 반대로 가까이해야 할 것이 설해져 있다.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대인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우선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즉 국왕이나 왕자, 대신이나 관리와 같은 권력자. 다음으로 이교도, 문학자나 음악가, 격투인 등 세상에 오락을 제공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오락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또 천드라라고 하는 천민 계층의 사람들이나 짐승을 기르거나 어업과 사냥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세속의 사람들을 자신해서 가까이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마음에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즉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법을 설해 줘라"고 강조한다. 이어서 성문(聲聞) 2승

린 제자나 사미(沙彌) 및 어린이 등을 기르지 말라고 한다.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하고 있다. 이것도 앞의 성 문제(性問題)와 연관되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어떤 경우에도 욕망의 생각(欲想)을 가지고 접근치 말라는 것이다. 성의 문제는 불교교단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출가수행자의 계율(戒律) 맨 처음에 바라이죄(波羅夷罪)로서 불음계(不淫戒)가 두어져 율(律)의 문헌에 갖가지 사례가 설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바라이(波羅夷)란 파라지카(parajika)의 음사(音寫)인데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하는 뜻으로, 비구(比丘) 승단(僧團) 또는 그 경계(境界)에서 떠나가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은 모두 초심의 보살 즉 초발심의 보살이 가져야 할 마음과 몸가짐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출가자의 본분은 독신(獨身)이어야 한다. 출가라는 말은 가족을 가지지 않아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중국의 유가(儒家)에서는 제가(齊家) 즉 집안을 다스리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데

문수사는 원래 문수동굴 앞 작은 법당 한 칸이 전부였다. 을 가을 중장불사 화향식을 갖는 문수사는 이제 법당(25평), 공양간(49평), 요사채(20평), 문수법당(40평), 나한전(15평), 삼각각(8평) 등 당우를 갖춘 도량으로 거듭났다. 스님은 18년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문수동굴에서 샘수는 김로수를 마시려고 찾아오는 등산객들을 상대로 야단법석을 연다.

혜정스님이 청담큰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전집에 들어가는 1천장 분량의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6월 27일, 본사인 삼각산 도선사로 향했다.

도선사에서 본 혜정스님은 청담대중사가 생전에 주석하시던 백운정사 앞 200년 수령의 보리수나무 옆을 산책하고 계셨다. 스님은 "은사스님을 추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논문을 쓰고 있지만 행동과 분리된 관념적인 냄새가 나는 사상을 늘어놓는 것이 허물은 아닐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고 말문을 여신다.

스님은 나직이 은사 청담스님을 회고 하듯 말씀하셨다.

"은사스님(청담)은 수행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으로 늘 '인욕'을 강조하셨습다. 자신의 수행은 물론, 중생들이 선행공덕을 짓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은사스님은 인과를 철저히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은사스님은 항상 제게 '내가 어떤 이에게 욕지거리를 당하며 매 맞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말리지 말고 '스님, 인과를 실천하고 계십니까'라고 한마디만 하며 그냥 지켜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언젠가 정말로 젊은 스님들이 물려와 큰소리를 치며 갑자기 큰스님을 때릴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스님의 평소 가르침을 까맣게 잊은 채 내가 끼어들어 풀어 말렸지요. 그 자리에서 은사스님은 저에게 호린 꾸지람을 하셨습다. 은사스님은 과거에 자신이 지은 인과의 업은 누가 말린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은사스님은 또 대중스님 중 누가 잘못해서 3천배 참회정진을 하면 꼭 함께 절을 하셨어요. 그 스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잘못된 공업(共業)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은사스님은 상좌들에게 무자정(無自正)이라고 하지 않았습다. 열심히 수행하여 자기 스스로 참는 마음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참는다고 인욕(忍辱)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불쾌하고, 힘든 일들이 닥치면 남의 탓을 하

# 청정한 마음자리 깨



가까이

혜정스

서울의 진산 삼각산(三角山). 삼각산은 상고시대부터 영산으로 추앙받았다. 그리고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 예종 4년 탄현 대감국사가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삼각산 정상 아래에 세운 절이 문수사이다.

기 보다는 내 자신이 지은 인과의 결과로 받아들이라는 게지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가르침이 오늘따라 유난히 생각합니다."

큰방으로 자리를 옮겨 독자들에게 들려줄 법문을 청하자 스님은 대뜸 "부처님을 믿는 것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분의 형상을 따르는 것은 이념을 알아야 해요. 생로병사(生老病死)에서 벗어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도 닦지 않는 중생들은 노예 되어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기 십상입니다. 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깨달았으면 합니다."라고 짧게 설하셨다. 스님은 18년간 등산객들에게 모든 악한 것은 하지 말고 모든 선한 것만 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고 덧붙이셨다.

참살을 밝히는 스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불교는 인간이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덕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상관(無常觀)'을 투철히 가져야 해요. 이 우주법계에 시간이 흘러도 흘러지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뚱아리도 물체인 만큼 언젠가는 사라지지요. 모든 우주만물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하다고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부처의 성품 즉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부처의 성품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청정한 성품을 번뇌와 탐욕, 집착이 가리고 있어 중생들은 몸뚱아리의 노예가 됩니다. 진정한 자신의 주인공인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이 인연은 소중한 것입니다. 인연만큼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니 수행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정한 마음자리를 깨달아 영원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왜 수행인가. 과연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일까. 많은 초심자들이



○은사인 청담대중사가 생전에 주석하시던 백운정사를 둘러보시는 혜정스님.

의문 갖는 사항이다.

"수행하면 덕이 생깁니다. 지혜와 복을 갖춰 남한테 복을 주는 사람은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사람들이 떠달려주지요. 그래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재가불자들은 사회 속에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쉽지 않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잠자기 전 1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씩이라도 '무루 복'을 얻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권력

무상 재물무상은 우주의 이치입니다. 백년간 쌓아온 재물은 루이침에 없어질 수 있지만 3만 수행해도 그 복덕은 100년 갑니다. 그러니 일념으로 수행세요. 수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스님은 수행의 가장 중요한 기초 '신심'이라고 강조하셨다. "겉으로 참선을 하고, 기도도 해도 신심이 없으면 어느 것 하나 이룰 수가 없어요. 신

## 권력자·이교도·사냥꾼·예술가 등

멀리해야 할 사람      가까이해야 할 일

## 좌선·마음 다스리는 일, 끊임없이 관하기

仁乘의 출가자 및 그 남신도를 가까이해서는 안 되며 또 성적(性的) 능력이 결여된 남성교도가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상이 가까이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맨 마지막, 성적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불교교단에는 원래부터 성적으로 건전한 남자가 아니면 승단(僧團)에 들어올 자격을 얻을 수 없었다. 곧 출가 수행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원래부터 성욕이 없거나 성적으로 불구여서 불능(不能)인 사람은 불도(佛道) 수행에서 성욕이 왕성한 사람보다 깨달음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욕망과 마찬가지로 성의 욕망도 극복할 수 있어 아만 해탈 열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적으로 불능인 사람은 불교 수행 길에서는 결격자로 규정되어 왔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수행자가 아닌 가르침을 받는 쪽의 사람에게 대해서도 성적으로 건전해야 할 것을 요구한 것이리라.

이 대인관계에서는 이상과 같이 가까이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 또 나아가

불가(佛家)에서는 집안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여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온갖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선 본능적으로 집착하는 근친자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가자는 가정을 버리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금욕(禁欲), 아니 극욕(克欲)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신 출가(身出家)보다도 심출가(心出家)가 더 위대하여 출가자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대승(大乘)이라는 이름 아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에서부터 위반하는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남방불교인 상좌부불교(上座部佛敎)에서는 북방불교 즉 이른바 대승불교(大乘佛敎)를 비불교(非佛敎)라고 규정짓고 있음에 대해 조용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다음에는 앞과는 반대로 친하고 가까이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 첫번째는 항상 좌선(坐禪)을 부지런히 하고 한적한 장소에서 그 마음을 다스려라'고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공(空)의 입장에서 서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라'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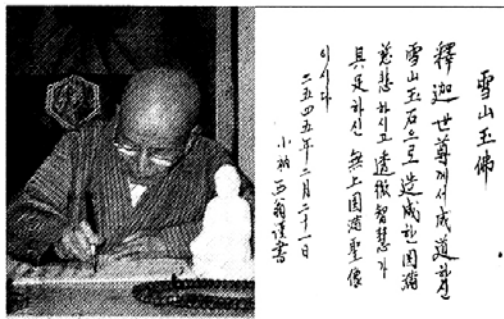
■무설정사 조실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부다 KOREA BUDDHA http 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출림방장 서운 큰 스님 / 추천서

